

내 삶을 만든 책들

방향과 좌절에 위안이 된 책읽기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책들을 읽게 되지만 자신의 학문이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들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책의 참된 가치를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가는 자신의 적성과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의 혼돈상태

나는 고등학교 시절 동대문 고서점에서 많은 책들을 사서 두루 편력했지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였고, 그것은 대학시절까지 계속되었다. 도무지 한 책을 끝까지 읽어낸 적이 없고, 항상 처음 몇장이나 반쯤 읽다가 그만두기가 일수였다.

대학교 3학년때쯤인가 민속학 강의를 듣다가 이두헌 교수로부터 제인 해리슨의 《고대의 예술과 제사(Ancient Art and Ritual)》라는 책을 소개받았다. 학기말 시험으로 아무 주제나 잡아서 써내라고 해서 나는 그 책을 우선 읽어보기로 하였다. 여러 책들 가운데 그 제목이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시작부터 그 책에 매료되어 다른 강의 시험들은 모두 제쳐두고 그 책에만 몰두했다.

그 영어문장은 그리 쉬운 편이 아니어서 시간이 꽤 걸렸다. 나는 학교앞 여관에 들어 며칠동안 그 책에 매달려 내용을 모두 요약했는데, 대학 노트 두권 분량이 되었다. 매우 흥미롭게 그 책을 끝까지 읽어냈으므로 처음으로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 책의 내용은 고대희랍의 제사의식에서 어떻게 연극이나 무용 그리고 조각 등 예술의 여러 장르들이 성립하였는가의 과정을 매우 명료하게 이끌어낸 것이어서, 그 책을 종교학이나 민속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적극 권유하였다. 그런데 나의 한 친구가 그 노트를 빌려갔다가 통학하는 기차칸에서 가방째 도난당하고 말았다. 나는 허탈하였다. 한달에 걸친 공든 작업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내가 미술사연구로 전공을 바꿀 때 무의식적으로 큰 작용을 했으리라고 믿는다. 언젠가 다시 읽어보아야 할 잊히지 않는 책이다.

나에게 감명을 준 또 하나의 책은 《난중일기》이다. 전라도 지방을 여행하다가 우연히 여기저기 산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후 체계적으로 그와 관련된 유적들을 답사하였다. 그가 어떠한 인간이길래 그토록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는가를 알기 위해 그의 일기를 읽었다. 그 일기는 하루하루가 짝막하고 간단한 것이었지만 솔직

고등학교와 대학시절까지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의 상태가 계속됐다. 방향과 좌절에 늘 위안이 됐던 책들은 나의 학문과 성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인 해리슨의 《고대의 예술과 제사》 충무공의 《난중일기》 간디의 자서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나를 사로잡아왔다

담백한 서술이 그리 진지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전투에서 “아직도 배가 열두 척이 남아 있습니다(尙有十二隻)”라고 임금께 보고하고, 어두운 밤 촛불을 켜놓고 친지신명께 승리를 기원하는 그의 처절한 모습은 나를 울렸다. 그 당시 나는 화가를 꿈꾸었으므로 나의 일생 동안 그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꿈은 몇몇 실험으로 그쳤을 뿐 이뤄지지 않았다. 공을 세우고도 모함으로 묵묵히 백의종군하는 무저항의 모습은 늘 내 맘속에 살아 있다.

진실의 담백한 감동

한편 나는 자나 깨나 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지니고 다녔다. 대학시절 방향과 좌절 속에서 그 책은 나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내 성격형성에 큰 몫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내 글의 문체도 그 영향을 받은 바 크다. 현재의 삶 속에서 고독과 성실로써

자기를 초극해나아가는 영웅이자 천재이며 탐구자인 짜라투스트라, 그는 늘 현실에 대결하여 순간순간 자기를 넘어서는 인간의 상징적 존재양식으로서 ‘초인(超人)’이라 불린다. 니체는 그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에서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가 오르고, 또 내리고 하는 사다다리는 무한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도 광대하게 보았고, 광대하게 의욕하였고, 광대한 능력을 표시하였다. 그의 말 속에는 이 모든 정신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의 제각각의 모순이 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모순이 하나의 새로운 통일로써 종합되고 있다. 인간성의 최고의 힘과 최저의 힘, 가장 감미로운 것, 가장 가벼운 것, 가장 무서운 것이 불후(不朽)의 확실성으로서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넘쳐 흐르고 있다.”

이 책에서 느끼는 산정(山頂)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늘 마음이 고조되었고 승화되었다. 나는 그러한 초인이 되리라고 늘 다짐하였다. 병약한 나의 육체와 심약한 나의 정신을 지탱해준 것은 바로 이 책이었다.

어느 고서점에서 함석헌 선생이 번역한 《간디의 자서전》을 샀는데 이 책 또한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 강인하지도 않은 섬세한 성격의 자그만 인간이 어떻게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불가사의하였다. 금욕생활을 끝까지 지키면서 한번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내고야 마는 그의 금강석같은 마음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의 실험정신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곤 하였다. 간디는 격동기 고난의 생애를 매우 객관적으로 잔잔히 묘사하고 있다. 그 자서전을 몇번이고 되풀이 읽었는데, 방향과 좌절에 허덕이는 나의 마음에 늘 위안이 돼주었다.

나의 학문에 결정적 역할

이처럼 나의 청춘 대학시절에는 충무공, 짜라투스트라(니체), 간디와 함께 살면서

그들은 내 삶 속에 용해되었다. 그들은 나의 자화상(自畫像)들이라 생각된다. 내 맘 속 깊이 그들의 성격의 편린들이 흩어져 있었기에 그 책들은 자석처럼 그 편린들을 한 곳으로 모아 어떤 형태를 형성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책들이 주는 서로 모순되는 것들은 아무런 갈등을 이루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낀다. 그 책들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학문과 성격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뜻하지 않게 마흔살 넘어 미국에 유학하여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 그때 온갖 어려움 속에서 홀연히 나타나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준 책이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다. 미국서 두해째 되는 여름방학, 나는 도서관에서 송옥 교수가 해설한 《님의 침묵》을 빌렸다. 그 시는 나를 사로잡았다. 그 당시 불교에 대한 공부를 얼마큼 한 때문이었는지 그 시들은 나에게 선시(禪詩)로 인식됐다. 처음에 마음속으로 읽다가 점차 소리를 내어 읽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그토록 강인한 성격의 만해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아름답고 심오한 시들을 단숨에 써 내려갔는지 불가사의하였다. 거기서 ‘님’이란 한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근기(根機)가 다른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와 보살이 무한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듯, ‘님’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읽으면 님은 애인이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에게는 님이 조국이며, 진리탐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님이 진리이다. 시인 송옥 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의 시를 연구한 분이었지만 만년에 《님의 침묵》을 만나 최후의 온 정열을 기울여 불교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나는 지금도 여행을 할 때는 늘 《님의 침묵》을 지닌다. 나는 늘 변하므로 님도 늘 변한다. 늘 다른 선율로 나의 심금을 울린다. 사랑의 증도가(證道歌)를 이렇게 알뜰하게 노래한 시인(詩人)은 세계에 없다. ❖